

82년을 함께한 공공의료 중심 종합병원

진료과 안내 내과 / 외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 신경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비뇨기과 / 치과 /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 가정의학과 / 정신건강의학과 / 직업환경의학과 / 응급의학과

특성화센터 건강검진센터 / 인공신장센터 / 트라우마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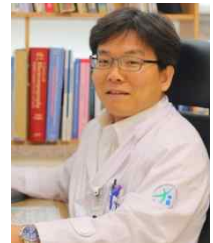
진 료 시 간 평일 오전 8:30 ~ 오후 5:30 (**응급실 24시간 접수 및 진료**)

대 표 전 화 통합콜센터 **032-580-6000**

“혹시 ... 제가 치매인가요?”
- 고령화 사회 대표 질환과 사회보장제도

인천광역시의료원신경과장

차정인



“제가 치매가 아닌가 걱정돼서 왔어요”

외래에서 신경과 진료를 하다 보면 70~80대 어르신들이 혼자 직접 찾아오셔서 위와 같이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고령화 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 노인성 질환의 빈도도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주변에 치매로 진단받는 노인들이 많다 보니 ‘나도 혹시...’하는 걱정이 생길 법도 하다.

실제로 2012년 역학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치매유병률은 9.18%였고 환자수는 5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고스란히 사회경제적인 부담으로 남게 되고 가정에서도 치매를 앓는 노인이 생기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나 뇌졸중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통해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등급에 따라 1-3등급까지 분류되어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나 주간보호센터, 또는 요양시설 입소 등의 복지혜택을 받도록 운영하고 있다. 간혹

치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어 보여 판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정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는 이렇게 잘 돌아다닐 수 있는 치매환자들이다. 이런 제도 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올해부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보완할 목적으로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여 많은 치매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치매는 꾸준한 자기관리로 예방할 수 있지만, 그만큼 사전 자가진단이 중요하다. 아래의 자가진단에서 해당되는 것이 많다면 즉시 전문의와 상담해 조기 치료하는 것이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치매 자가진단 리스트>

1. 전화번호를 찾아 통화하는게 어렵다.
2. 요리를 하거나 밥상을 차리는게 어렵다.
3. 대중교통을 혼자서 이용하지 못한다.
4. 면도, 화장 등 몸단장을 혼자서 하지 못한다.
5. TV,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사용하지 못한다.
6. 안경, 옷 등 소지품을 혼자 관리하지 못한다.
7. 예전부터 해오던 취미생활을 잘 하지 못한다.